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분양 분양가상한제 적용... 합리적 가격 돋보여

Advertorial Corner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거북섬 일대 지하3~지상35층 12개동 1796가구 전용 60~85㎡ 오피스텔 84~119㎡

현대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51가구,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공동주택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 가구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로 구성된다. 4베이(Bay)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 및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현대건설은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지가 위치한 시화MTV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기존 주택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돼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7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흥 은행동에서 분양했던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불특별로 각각 1921만원, 190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힐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조감도. /현대건설

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약 500만원 저렴한 1410만원으로 책정됐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거북섬 일대는 상업, 주거,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위치해 있고,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레저쇼핑 시설 '보니타가'도 자리 잡고 있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해양 테마시설 '해양생태과학관(2024년 예정)', '아쿠아팸랜드' 등 대규모 국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맞은 편에 시화나래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만큼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우수한 교육환경도 자랑한다.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지역 내 공급돼 청약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DL이앤씨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하이엔드 아파트 선호도 3회 연속 '1위'

보증금 20억, 월세 4500만원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료 최고

DL이앤씨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올해 최고 임대료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 264㎡(47층)가 보증금 20억원, 월세 4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 임대료(월세 기준)며 2년 전에 비해 월세가 1800만원 오른 가격이다.

DL이앤씨는 올해 서울에서 월세 기준 2000만원 이상 아파트 임대차 계약 27건 중에 무려 11건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매매가 또한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전용 198㎡가 95억원에 팔린 데 이어 한 달만에 9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종전 거래가(55억2000만원) 대비 70% 이상 오른 가격이다.

DL이앤씨는 아크로의 독보적 가치와 위상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평가에서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DL이앤씨

빅데이터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0~50대 남녀 1만 71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41.7%가 가장 살고 싶은 브랜드로 아크로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남녀 성별 상관없이 전 연령대에서 선호를 받으며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는 역세권, 학군 등 전통적인 부동산 평가 지표를 넘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서울 부촌의 지도를 바꾼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연 13% 이상 금융상품 등장

은행권, 고금리 미끼로 수신 경쟁

당국, 과도한 수신 경쟁 우려
조달비 상승엔 제2금융 타격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많아
가입 전 실질 금리 확인 필요

주요 은행이 자금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을 펼치고 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일부에선 연 13% 이상의 금융상품도 등장했다. 하지만 고금리 금융상품 대다수가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경쟁을 우려해 은행권에 자체를 당부한 상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지방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유치한 고금리 금융상품의 만기를 앞두고 자금 확보를 위해 최고 연 13%에 달하는 고금리 금융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대규모 예·적금 만기에 따른 자금 이탈을 막고, 타 은행으로부터 새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이어진 채권시장 경색에 당국 요청에 따라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상품 수신으로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해당 상품들의 만기가 다가오는 만큼 자금난을 피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 금융상품 중에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걸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미끼 상품'이 많아 가입에 앞서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실질 금



주요 은행들이 돈을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 /뉴시스

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입기간 1년 이하의 금융상품 중 최고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전북은행이 판매하는 'JB슈퍼씨드 적금'이다. 기본 연 3.60%, 최고 연 13.60%의 금리를 제공한다. 10%포인트(p)의 금리는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로 제공하며, 적금을 12개월 유지했을 때 우대금리 대상자가 될 확률은 약 2.2% 안팎이다.

광주은행의 '광주은행제휴적금with유펙플러스닷컴'은 기본 연 3%, 최고 연 13%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은행 계좌를 통해 납입금을 자동이체 납부할 경우 0.5%포인트(p), 제휴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요금제를 신규 가입하고 유지해야 9.5%p의 우대금리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일일적금 상품 '데일리워킹 적금'은 기본 연 1%, 최고 연 11%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만보기 앱을 통해 측정된 걸음 수가 가입일 기준 1만보 이상일 경우에만 당일 납입금에 한해 연 10%p의 우대금

리를 적용한다.

부산은행의 '너만 Solo 적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 2.50%의 금리를 제공하고, 최고 금리는 9.00%다. 가입기간 중 혼인신고가 성사될 경우 5.00%p, 혼인신고 대상자가 동일 상품 가입자일 경우 0.50%p 등 최대 6.5%p의 우대금리를 조건부로 제공한다.

수신 경쟁 과열이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전국 10개 시중은행 부행장과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간담회'를 열어 시장금리 상승폭을 상회하는 과도한 수신 경쟁 자체를 당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간 수신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대출금의 원천이 되는 조달비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신 경쟁 과열로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이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2금융권에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우리銀, 내년 인도에 2개지점 추가 개설

푸네·아마다바드 지점 예비인가
인도 전역에 총 5개 지점망 구축

우리은행이 최근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푸네, 아마다바드 지점 개설 예비인가를 획득해 2024년 상반기 중 개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첸나이 지점을 시작으로 2017년 구르가온(델리), 뭄바이 지점을 개설한 우리은행은 이번 예비인

가를 계기로 내년까지 인도 전역에 총 5개의 지점망을 구축하게 된다.

푸네는 인도 서부자동차산업벨트의 핵심도시로 인도 및 외국적 자동차의 생산 공장과 포스코, LG전자 등 다수의 한국계 자동차부품 협력업체가 진출해 있어, 우리은행은 한국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마다바드는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이자 인도 수출 점유율 1위 항만 지역

으로, 224개의 대형 산업단지과 26개의 SEZ(경제자유구역)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곳 현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도는 세계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지역이자 초대형 신형 성장국가로 글로벌 대기업 및 국내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이번 예비인가 획득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인도 경제와 동반성장하며 아시아 넘버원(No.1) 글로벌 금융사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카뱅, 중신용대출 금리 최대 0.75%p ↓

중저신용대출 비중 30%달성 노력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P)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저신용자는 신용평점이 KCB 기준 860점 이하인 차주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달 초 중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며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중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4.05%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중신용대출상품은 연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가능하다.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이후 꾸준히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신용대출을 공급해 누적 9조5655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들어 공급한 금액은 2조4549억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남은 기간까지 중저신용자, 금융이력부족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겠다"며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치인 3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BNK부산은행 금융소비자 보호지수 2년 연속 '우수 기업'

BNK부산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23년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지수' 지방은행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긍정적인 체험을 위해 ▲CX익스플로러(고객패널) 제도 ▲금융소비자보호 영업점 통합컨설팅 제도 ▲시니어 서포터즈 제도 ▲이동점포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